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유 지 혜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유 지 혜

인 준 서

유지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가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집단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을 동반한 양육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라게 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에 애착과 유대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가족관계는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죽음으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애착과 유대감이 형성된 가족의 죽음은 삶에 있어 무기력과 무의미를 가져오게 된다. 본인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가족과의 관계가 멀지 않은 날에 이별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이 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분리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통해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다.

본인은 가족과의 이별이 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통해 두려움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16년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가족관계가 어떻게 절대적인 관계로 성장되는 것인지 서술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별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서술하여 작품형성배경을 서술하였다. 둘째, 포토몽타주기법과 과정적인 작업으로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였고, 다양한 매체들을 공간에 배치하여 하나의 의미구조를 만들어 상황적 설치하는 것에 대한 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셋째, 본인의 작품 8점에 대해 작품설명과 제작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형성배경	2
1) 절대적 가족관계	2
2) 애착관계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3
2. 작품표현방법	5
1) 포토몽타주	5
2) 과정으로서의 작품	7
3) 상황적 설치	8
3. 작품분석	11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단채널영상 1분23초, 씨앗이 들어있는 오브제, 씨앗을 심은 화분, 일지, 가변설치, 2016	11
【작품 2】	여전한 당신의 사랑, 4채널영상 3분50초, 가변설치, 2016	14
【작품 3】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 단채널영상 1분20초, 가변설치, 2016	18
【작품 4】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는 이유, 4개의 조명, 셀로판지, 편지봉투, 가변설치, 2016	21
【작품 5】	마음주인, 단채널영상 2분51초, 갱지드로잉, 가변설치, 2016	24
【작품 6】	영원할 수 있는 공간, 단채널영상 1분30초, 가변설치, 2015	27
【작품 7】	24~29살 가족사진, 가족들 20대 사진, 지류, 가변설치, 2016	29
【작품 8】	공상, 메트로놈, 셀로판지, 비눗방울, 빛, 가변설치, 2016	32

I. 서 론

우리는 우리의 선택 없이 태어나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만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을 동반한 양육과정을 통해 애착관계와 유대감이 형성된다. 그리고 가족들과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 겪음으로써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긴밀하게 결속되고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발전된다. 그래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의지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부터 함께 지내온 가족과의 이별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어느 날 아빠는 나에게 엄마, 아빠가 먼저 죽으면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전까지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분리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통해 두려움은 더 깊어졌다. 나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존재인지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며 이를 바탕으로 포토몽타주기법, 과정적인 작업, 상황적 설치 등의 표현방법들을 이용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며 연구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절대적 가족관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까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곳이 생활환경의 중심이 된다.

“Minuchin¹⁾은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단위체계로 볼 때 그 체계내부에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며, 그 다음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과 같은 양자관계가 또 다른 하위체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하위체계가 특정한 위계를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 가족체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 간에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각 구성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²⁾

우리는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많은 접촉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영향 아래에서 정서적인 것, 생활과 식습관, 종교 등이 형성되고, 형제자매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우리는 성장된다. 그리고 일상을 함께하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겪기에 우리들의 추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고, 같은 경험을 함께 하면서 추억과 정서가 서로 닮아가게 된다. 그렇다

1) Salvador Minuchin(1921년생)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자란 가정치료사이다. 그는 구조적 가족치료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 또는 가족의 부분 간 관계를 도표화함으로써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한다(Minuchin, 1974).

2) 오채영, 「가족기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6, 7

보니 지나간 추억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때의 감정과 기억의 많은 부분들이 가족들과 이어져 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가족성격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발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독립을 하더라도 가족의 전체 이면서 부분으로 존재하며 서로 결속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가족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섬세해지고 단단해지며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본인 자체의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2) 애착관계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며 태어나 일정한 시간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 즉 인간에게 죽음이란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며, 가족구성원들에게 영원한 이별을 가지고 온다. 본인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가족의 죽음이 왜 상상만으로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롤랑바르트의 『애도일기』³⁾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나의 슬픔은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나의 슬픔은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일 때문이 아니다. 나의 슬픔이 놓여 있는 곳, 그 곳은 다른 곳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라는 사랑의 관계가 찢어지고 끊어진 바로 그 지점이다. 가장 추상적인 장소의 가장 뜨거운 지점 1977.11.5.”⁴⁾

3) ‘현대 비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으로 꼽히는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일기다. 바르트의 어머니 앙리에트 뱅제는 1977년 10월 25일 사망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르트는 애도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이 일기는 2년 뒤인 1979년 9월 15일에 끝난다. 노트를 사등분해서 만든 쪽지 위에 바르트는 잉크로, 때로는 연필로 일기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위 조그만 상자에 이 쪽지들을 모아두었다.

4) 롤랑바르트, 『애도일기』, 이순, 2012, p47

바르트에게 사랑은 ‘뺏어져 있음’ 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뺏어짐은 끊어졌고 그 자리에 꽤인 고통이 생겼다. 절대적인 사랑을 주던 주체가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꽤인 고통은 앞으로 계속 되게 된다.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상실이 남긴 부재의 공간 또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꽤인 고통으로만 남게 된다.⁵⁾

“오늘은 나의 생일. 몸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걸 그녀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1977.11.12.”⁶⁾

친숙한 일상이었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당연히 공유되던 것들이 공유될 수 없게 된다. 공유 되었던 주체가 사라졌다. 나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그녀는 이제 없다. 영원하고 완전한 없음의 자각 속에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그녀가 없는 곳에서 그녀가 없는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⁷⁾

“나는 그녀와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동시에) 죽지 못했다. 1979.5.1.”⁸⁾

지금까지 본인은 가족과 나를 떨어트려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견고하고 따뜻한 가족체계 안에서 4명의 가족구성원이 하나의 전체라고 생각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애착대상의 상실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기며 부재 이 후의 시간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고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앞으로의

5) 롤랑바르트, 위의 책, P268

6) 롤랑바르트, 위의 책, p56

7) 한석현, 「애도와 실재의 윤리: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와 『밝은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11

8) 롤랑바르트, 위의 책, p245

시간을 견뎌야하고 그리움의 고통을 느껴야한다. 오랫동안 함께 쌓은 추억은 본인이 오롯이 가져가게 되고 혼자 짊어지게 된 기억의 무게는 무거워지게 된다. 본인의 작품 【마음주인】은 감정과 추억을 공유하던 대상이 사라진다면 본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오브제와 행위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가족체계에서 서로 간에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다시 가족의 변화를 가져 온다고 말하지만⁹⁾ 애착관계가 형성된 가족관계는 바르트의 말처럼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 될 수 없고 부재의 공간은 그저 패인고랑으로 남을 뿐이다.¹⁰⁾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의 크기를 느낄 수 있었고 본인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2. 작품표현방법

1) 포토몽타주

“사진 찍는 행위는 흘러가는 시간과 살아 있는 세상을 자르고 파편화하는 동시에 화석화시킨다. 카메라는 실상의 파편을 흠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상의 시공적인 운동성을 멈추고 얼어붙은 실상으로 변환시켜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런 사진은 죽음과 모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박제화되서 죽음을 간직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오브제로 남는다는 점이다.”¹¹⁾

9) 오채영, 위의 논문, p6

10) 롤랑바르트, 위의 책, P268

본인의 작품 【24~29살 가족사진】은 가족구성원의 죽음에 대해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 된 작업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된다. 우리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슬퍼하고 그리워 할 날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지금의 동생과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부모님의 연애시절 사진을 발견하고는 우리 가족의 20대 가족사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대는 청춘이며 삶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할 때 이다. 건강한 에너지가 담긴 20대의 가족사진을 만들어 가족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형성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가족들의 20대 모습의 사진을 오려내어 배열하고 우리가 살아온 해운대 사진을 배경으로 결합하여 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사이에 끊기는 부분들을 종이를 이용해 덧붙였다.

“다다의 몽타주를 보면 수많은 여백 또는 간극들이 있다. 왜냐하면 잘라낸 사진 형상들 사이에 있는 하얀 면은 그 형상들을 접근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는 도구처럼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극이 생긴’ 사진 이미지는 사진의 수많은 환영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환영을 박탈당한다. 사진 이미지는 현존의 느낌을 잃어버린다.”¹²⁾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진들이 결합되어 시간성을 파괴하고 알 수 없는 시간을 가진 사진으로 만들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가족사진을 만들었다.

작품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는 점점 다가오는 이별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작품이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잘라서 할머니와 본인의 이미지를 서로 다른 면에 붙인다. 서로 다른 면에 붙인 사진은 절단된 단편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 부재 하는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부재 자체를 현존하게 한다.¹³⁾ 두 사진 사이에는 나무막대기가 고

11) 구두연, 「설치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40

12) 로잘린드 크리우스,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궁리, 2003, p177

정되어 있고 손으로 막대기를 돌리면 잔상 효과로 인해 두 이미지는 겹쳐져서 한 장면으로 합쳐져서 보이게 된다. 이 움직임으로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들과 상황들을 다시 회상 시키며 유대감을 소환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다.

“사진의 이미지는 현실의 단편을 떼어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 순간에 거기에 있었던 것’ 으로서 일관되게 증언하는 기록이다. 그런데 간극들을 표시한다는 사실은 현존의 동시성을 파괴하며, 결국 서로 무관하게 분리된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들을 하나하나 시퀀스로 보여준다. 이 간극들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의미 작용에 의해 감염된 양상, 다시 말해 기호의 실존에 앞서 형태적 조건들을 구성하는 공백과 여백에 의해 확장된 현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4)

2) 과정으로서의 작품

“행위를 오브제로 이용하여 회화나 조각 등 전통적인 장르 개념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표현 욕구를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체 예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정 예술로 불린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표현을 중시하고 신체와 시간이 예술가의 내부 감정과 엮어지는 실질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15)

이러한 행위는 비디오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표현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비디오 아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작품 【마음주인】은 소중한 사람의 존재 있음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부분

13) 로잘린드 크라우스, 위의 책, p245

14) 로잘린드 크라우스, 위의 책, p177

15) 석유진, 「퍼포먼스미술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6,7

은 차지하는지, 그 존재의 죽음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하였다. 아크릴 봉과 투명비치볼을 결합하여 만든 오브제에 가족과 관련된 몇 가지 단어를 갱지로 잘라서 넣었다. 아크릴 봉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안에 갱지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입을 떼고 가만히 놔두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갱지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행위의 과정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갱지의 모습이 작품이 되며 이를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품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에서 손의 움직임은 관계의 영원을 바라며 그런 마음의 욕구를 표현한다. 이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함께 찍은 할머니와 본인의 사진을 잘라서 서로 다른 면에 붙인다. 손의 움직임으로 서로 다른 면에 있는 할머니와 본인의 사진이 한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작품이 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 마치 수행적인 느낌의 행위를 통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회복시키며 애착을 계속 밀착시킨다.

작품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에서는 참여자들이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한 채 씨앗을 받아서 키우게 되는데 키우면서 꽃에 대한 마음이나 꽃이 자라는 상황을 자유롭게 일지를 작성을 하였고, 그 과정들을 전시하여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씨앗과 참여자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상황적 설치

“미셸 누리자니(Michel Nuridsany)는 ‘설치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다. 설치는 퍼포먼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실체를 명확히 드러낸 흐름이다. 그것은 연출이며 조립이자 각종 오브제들의 배치이

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16)

“20세기, 마르셀 뒤샹으로부터 시작된 오브제의 활용은 설치미술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물체는 그 나름의 용도나 기능 또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나 이러한 물체가 일단 오브제로 쓰이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은 의미를 잃게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연상작용이나 기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7)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또는 영상을 찍기 위해 필요한 오브제를 만든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물들, 예를 들면 **【마음주인】**에서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 안에 담긴 갱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야 했다. 투명비치볼과 아크릴 봉을 결합시키고, 안에 갱지를 넣어 표현도구를 만들었다.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에서는 손으로 돌릴 도구가 필요해서 사진과 막대기, 마분지를 결합시켰다. 또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에서는 참여자들이 씨앗을 북북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물이 필요했는데, 가로등에 쓰이는 투명구와 나무막대기를 결합하여 필요한 오브제를 완성시켰다.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오브제끼리 결합을 하여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만들어 표현했다. 오브제를 창의적인 생각으로 변형 시켜서 당연히 생각되었던 사물의 기능과 관념을 새롭게 바꾸어 재인식하도록 하였다. 본인의 설치에서 이러한 오브제들은 독자적으로는 작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공간에 다른 매체들과의 배치를 통해 하나의 의미구조를 만들어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인지를 만들어진 오브제와, 하나의 영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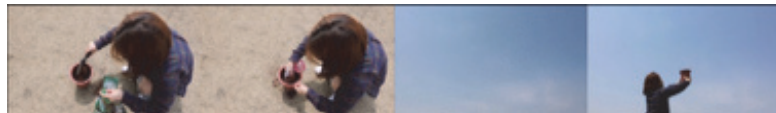
16)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서울:미진사, 1999, p214
17)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자들이 키운 화분 속 싹과 작성한 일지를 함께 공간에 배치하여 의미구조를 만들며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서는 가족관계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될 수 없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간에 오브제들을 배치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관객들은 설치된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 【공상】은 안과 밖이 다른 세계로 대치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른 느낌의 시간의 흐름을 느껴지도록 하고 싶었다. 오브제에 각각의 성격을 부여하고 안과 밖에 오브제를 대치되도록 설치했다. 밖의 빛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서 셀로판지의 색을 입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다른 세계의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만들어진 오브제들을 가지고 작품 내용 중심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상황적 설치를 하여 관객들은 이 공간에서 연출한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브제와 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공간 연출을 함으로써 관객들은 공간에서 작품과 새로운 감각의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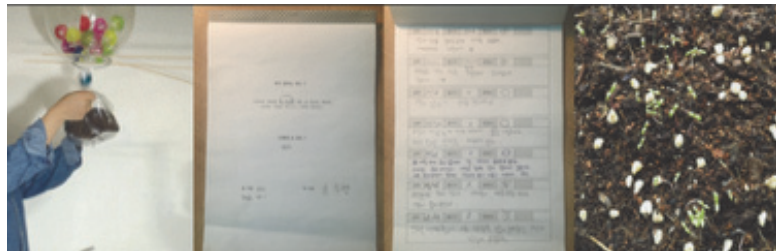
“설치미술은 고정된 사과의 틀과 조형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모든 장르를 총 동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인 회화나 조소 개념에서 탈피하여 표현 매체를 주변 환경이나 장소와 밀접한 관계 아래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배열, 배치하여¹⁸⁾, 하나의 환경을 이룸으로서 그자체가 작품이 된다.”

18) 안연희, 위의 책, p214

3. 작품분석



영상 스틸컷



오브제로 씨앗을 받고 키우며 일지를 작성한 모습



설치 사진

【작품 1】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작품 1】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단채널영상 1분23초, 씨앗이 들어있는 오브제, 씨앗을 심은 화분, 일지

제작방법

이 작품은 영상과 오브제 그리고 참여자들이 씨앗을 받아 키우면서 작성한 일지와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영상 - 화분에 흙을 담고 물을 뿌리고 하늘을 향해 화분을 내민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다.
2. 오브제 - 둥근 투명한 통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얇은 나무 막대를 3개 꽂는다. 이 통에 씨앗이 든 캡슐을 넣는다. 그 캡슐 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이 들어있고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는 써져 있지 않다.
3. 화분과 일지 - 참여자들은 둥근 통에서 종류를 알지 못하는 씨앗이 든 캡슐을 복불복으로 하나를 받게 되고 씨앗이 발아되고 키우는 과정을 일지에 쓰게 된다.

작품설명

우리는 우리의 선택 없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우리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 되는 것인지 보여주고자 했다.

참여자들을 씨앗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참여자들이 쓴 일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오브제통 안에 여러가지 종류의 씨앗이 든 캡슐이 있는데 참여자들은 복불복 방법으로 받아서 심게 되고 어떤 씨앗인지는 알지 못한 채 키우게 된다. 씨앗을 심은 날부터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지를 쓰게 되는데 일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와 씨앗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물을 주게 되고 햇빛을 쬐어 주게 된다.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씨앗을 관찰 하게 되고 일지에는 참여자들이 싹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모습, 발아가 되었을 때의 흥분한 모습 그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느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일지를 보면서 양육과정을 통해 애착관계가 형성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아를 했을 때 만약 그 씨앗이 민들레라면, 그냥 그렇게 민들레를 키우게 된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씨앗이 본인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민들레를 버리진 않는다. 본인과 씨앗이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레 애정과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 유대감이나 애착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씨앗이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작품 2】 여전한 당신의 사랑

【작품 2】 여전한 당신의 사랑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4채널영상 3분50초

제작방법

3개의 텔레비전과 1개의 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1. 왼쪽 텔레비전 - 60나이의 할머니가 과일을 깎아 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
2. 중간 텔레비전 - 70나이의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여 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
3. 오른쪽 텔레비전 - 80나이의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
4. 빔 프로젝트 -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본인이 느끼고 느꼈던 감정을 꽃으로 드로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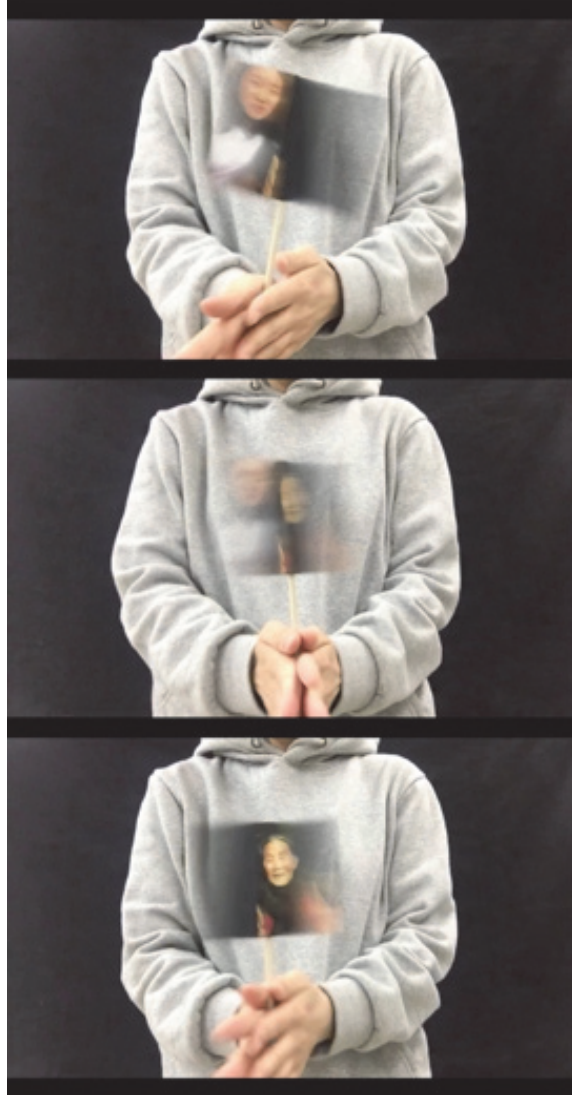
어렸을 때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꽃게 된장국을 자주 끓여 주셨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것만 먹을 정도로 좋아했다. 그리고 햇살 들어오는 마루에 앉아 즙이 떨어지는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 주셨는데 달달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요리는 못해 주시지만 대신 용돈을 꼭 주신다. 어느 날 용돈을 주시려고 침대에서 장롱으로 걸어

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할머니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한걸음 한걸음을 힘들게 내딛으며 가셨다. 그 시간에 해는 지고 있었고 지는 햇빛이 창을 넘어 들어와 할머니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나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크기의 슬픔으로 다가왔고 함께 보낸 지난 시간들이 마음을 스치며 우리의 관계가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그렇게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걷기조차 힘들어지시는데 계속 주시는 사랑은 한결 같아 마음이 벅찼다. 여전히 무언가를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지만 나이를 드시면서 아픈 모습을 보며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더 크게 느낀다.

텔레비전 영상과 빔에서 나오는 영상은 왼쪽에서 같이 시작하여 영상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텔레비전은 할머니의 모습을 담았고 빔에서는 본인이 느끼고 느꼈던 감정을 꽃으로 드로잉하는 모습을 담았다. 왼쪽 텔레비전(60대의 할머니)에서 영상이 나올 때 빔의 영상에서 본인도 제일 왼쪽에서 서서 드로잉 행위를 하고 있고 중간 텔레비전(70대의 할머니) 영상이 나올 때 또한 본인도 중간에서 드로잉 행위를 하고 있다. 제일 오른쪽(80대의 할머니) 부분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일차(一)로 켜지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표현 했고, 빔에서 나오는 영상은 퍼포먼스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를 점점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빔의 영상에서는 미리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허리 꼳꼳한 사람의 모습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고 또 점점 높은 위치에 그려져 있다. 본인은 그 주위에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60대, 70대, 80대에 주신 사랑에 느꼈던 행복을 꽃으로 그리며 표현한다. 80대 할머니 부분에서는 본인의 손이 할머니 그림에 닿지 않는다. 닿으려고 뛰면서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날 건강하시던 때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프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

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가족의 나이 들과 아픔, 예상 되어지는 이별을 막아 낼 수 없음을 표현했다.



【작품 3】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

【작품 3】 나를 위한 우리의 셀카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단채널영상 1분20초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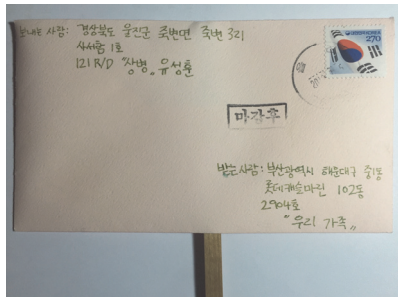
1. 마분지 한 면에는 본인의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할머니 사진을 붙인다.
2. 두 장의 마분지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붙인다.
3. 막대기를 돌리며 영상으로 찍는다.

작품설명

나는 여행을 다니고, 서울에 올라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 집에 들러 우리의 셀카를 찍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습관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같이 가만히 명 때리다가 사진을 찍기도 한다. 사진 찍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눈치 채시기 전에 찍기도 하고, 눈치를 채시고는 인상을 쓰셔도 개의치 않고 그 표정을 찍는다. 각각 다른 감정이 담긴 우리가 함께 한 일상 사진을 소장하고 모은다. 이 사진들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중에 이 사진들은 그 때의 상황과 그 때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그 때를 떠올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잊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사진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재밌고 그런 일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더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찍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작품에서 사용한 사진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와 본인의 셀카 사진이다. 점점 다가오는 이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할머니와 본인의 이미지를 잘라서 서로 다른 면에 붙이며 표현했다. 손으로 막대기를 돌리면 잔상 효과로 인해 두 이미지는 겹쳐져서 한 장면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손 움직임은 노력과 인내심을 동반한다. 마치 수행적인 느낌의 과정의 행위를 통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회복시키며 애착을 계속 밀착시킨다. 이별로 인해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움직임을 통해 표현 했다.



원 모양의 빛 안에 꽂혀져 있는 동생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



설치 사진

【작품 4】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작품 4】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4개의 조명, 셀로판지, 동생이 군대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봉투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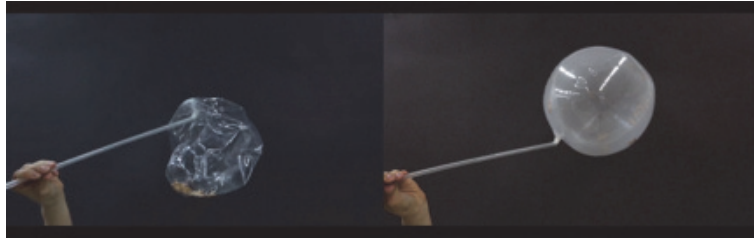
1. 4개의 조명에 검은색 종이를 감는다.
2. 조명1에는 초록색, 조명2에는 빨간색, 조명3과 4에는 노란색 셀로판지를 붙인다.
3. 초록색, 빨간색 빛이 나오는 조명은 위쪽 벽에 고정시켜서 같은 곳을 비추어 빛으로 된 원을 만든다.
4. 만들어진 원 안에 동생이 군대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봉투를 나무막대기에 고정을 시켜서 꽂는다.
5. 노란색 빛이 나오는 조명 2개는 아래에 설치하였다.

작품설명

가족구성원은 왜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될 수 없는 지를 생각하며 시작한 작품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간은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이 곳에서 우리들만의 정서를 만들고 추억들을 쌓아가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세상이 된다. 몇 년 전 동생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었는데 주소와 함께 받는 이가 우리 가족이이라 쓰여 있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족이란 단어는 낯설지만 특별하게 다가왔고 우리는 실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

이 사는 지구에서 나에게 딱 떨어진 3명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당연하기 보다는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었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빨간색 빛의 조명과 초록색 빛의 조명은 부모님을 뜻한다. 이 두 조명은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나온 두 빛은 겹쳐져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 빛 속에 우리집 주소와 받느이 우리가족으로 되어 있는 편지 봉투를 세워 놓았다. 부모님이 만든 우리의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되고 조명을 위쪽에 설치하여 빛이 아래로 비춰지는데 이것은 보호 해주고 지켜준다는 의미로 표현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 빛을 내는 조명은 동생과 본인을 뜻하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와 그 밖의 세계를 자유롭게 부유하며 돌아다닌다. 빛의 색상에서 초록색과 빨간색을 겹치면 노란 색이 되는데 이것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색상으로 은유하여 표현 했다.



영상 스틸 컷



위 영상 스틸 컷의 비치볼 상태에 따라 비치볼 안에 있는 갯지의 모습을 드로잉한 작업



설치 사진

【작품 5】 마음주인

【작품 5】 마음주인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단채널영상 2분51초, 갱지드로잉

제작방법

1. 아크릴 봉과 투명 비치볼을 결합한다.
2. 비치볼에 몇 가지 단어로 자른 갱지를 넣는다.
3. 아크릴 봉을 잡고 바람을 분다.
4. 바람을 불면 점점 습기가 차게 되고 갱지는 비치볼 표면에 붙게 되며 어떤 글자인지 보여진다.
5.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다.

작품설명

본인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진다면 그들과 공유했던 마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한 작품이다. 각각의 사람마다 공유 될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는 다르다. 대상을 가족으로 정하고 본인이 그들에게 느끼는 고유한 것들을 단어로 정했다. 사랑과 안정 같은 것들이다. 이 단어들을 갱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여기서 갱지의 특성은 습기에 의해 젖으면 퍼지게 되고 마르면 돌돌 말리게 된다. 단어가 된 갱지를 비치볼에 넣고 아크릴 봉에 본인의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 넣는다. 여기서 비치볼은 심장을 의미한다. 본인의 숨에 의해 비치볼은 부풀게 되고 그 안은 습기가 차고 건조하게 말라있던 갱지는 날아다니며 습기를 먹게 된다.

그러다 비치볼 표면에 붙게 되고 글자의 형태를 띄게 된다. 사람과의 대면은 심장을 작동하게 한다. 즉 안에 담겨있던 감정과 이야기들은 되살아나게 된다. 이제 입술을 떼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갱지들은 마르게 되고 돌돌 말아진 상태로 비치볼 아래에 어떤 글자인지 알지 못한채로 마른 낙엽처럼 놓여져 있다. 사람의 숨이 없다면 비치볼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축 쳐져 있다. 즉 혼자서는 마음과 함께한 것들이 공유 될 수가 없고 그냥 놓여져 있을 뿐이다.



【작품 6】 영원할 수 있는 공간

【작품 6】 영원할 수 있는 공간

연도 : 2015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단채널영상 1분30초

제작방법

1. 바람에 의해 위태롭게 흔들리는 꽃을 발견한다.
2. 병을 썩워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다.

작품설명

인간이 태어나 죽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그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꽃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로 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공원에서 바람에 의해 곧 꺾일 것 같은 꽃을 발견했다. 저대로 두면 죽지 않을까 생각해서 병을 썩워줬다. 병 속에 있게 된 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고요해 보였다. 또 비가 많이 오던 날에는 비를 피할 수 있게 병을 씌어줬다. 그렇게 심한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줬는데 꽃은 죽었다. 비와 바람은 연약한 꽃에게는 위험하지만 결국 바람과 비를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꽃에게 과도한 보호와 애착은 또 다른 죽음을 초래 한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음을 피해 갈 순 없고 다른 이유로 죽게 될 뿐이다.



【작품 7】 24~29살 가족사진

【작품 7】 24~29살 가족사진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가족들 20대 사진, 지류

제작방법

1. 가족들의 20대 사진을 모아서 배열한다.
2. 우리가족의 고향인 해운대 사진을 배경으로 배열한다.
3. 종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확장시키고 통일시키며 한 이미지로 콜라주 한다.
4. 통일감 있게 채색을 한다.

작품설명

부모님과 본인의 나이 차이는 약 30살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약 30살을 그 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외롭게 느껴진다.

우리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가족구성원의 죽음에도 고통과 그리움의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작업이다. 지금 동생과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부모님의 연애시절 사진을 발견하고는 우리가족의 20대 가족사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대는 꽃 같은 청춘이며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가장 충만할 때 이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20대의 가족사진을 만들어 가족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형성 하고자 했다. 우리가족이 20년 동안 살아온 해운대를 배경으로 하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가족들의 20대 모습의 사

진을 오려내어 결합하여 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알 수 없는 시간을 가진 사진으로 만들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 할 수 있는 가족사진을 만들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영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정감을 느끼며 재밌게 작업했다. 하지만 오려붙인 가족사진의 이질적인 라인을 통해 우리는 끝내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함을 또 다시 느꼈다.



【작품 8】 공상

【작품 8】 공상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메트로놈, 셀로판지, 비눗방울, 빛

제작방법

1. 메트로놈에 청테이프를 두르고 투명구를 씌운다. 그리고 창을 바라보게 설치한다. 메트로놈 소리가 방울 가득 메우게 한다.
2. 셀로판지를 창에 덕지덕지 붙인다. 밖의 빛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셀로판지의 색을 입고 들어온다.
3. 창 밖에는 자동 비눗방울 머신을 튼다.

작품설명

창밖의 비눗방울과 창안의 메트로놈시계를 대치 되도록 두었다. 비눗방울은 찬란한 빛깔로 떠다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지고 만다. 살아있는 동안의 찬란함과 길지 않은 시간을 사는 인간이 꼭 비눗방울 같다고 생각했다. 메트로놈의 침은 시계 침으로 생각했는데 좌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만이 계속되어 영원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투명구를 씌워 메트로놈 시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메트로놈과 비눗방울 두 오브제를 대치하여 현실과 내가 만든 시간 속 세상이 맞서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밖의 빛은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서 셀로판지의 색을 입고 들어오게 된다. 밖과 안이 다른 세계로 대치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른 느낌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도록 연출하였다.

Ⅲ. 결 론

가족은 하나의 사회체계로써 기능을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구성원들간에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성원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고 절대적인 관계로 성장된다. 그러므로 애착관계가 형성된 가족의 상실은 개인의 삶에 있어 무의미와 혼란을 가져오고 정서적으로 기떨 곳을 사라지게 한다. 태어남과 동시에 형성되었던 개인의 세상은 균열이 가고 깨지게 된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족의 죽음이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이별에 다가가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포토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사진 이미지의 단편들을 떼어내어 배열을 통해 다른 이미지로 변환 시켜 보여준다. 시공간의 흐름을 멈추고 화석화 시켜 영원한 이미지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깨질 것만 같은 관계의 두려움을 신체를 이용한 행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착을 밀착 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노력, 관심, 애정을 동반하며 과정을 통해 안심을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오브제들과 영상, 빛 등을 이용하여 공간에 배치하고 의미구조를 만들며 하나의 작품으로 설치하여 이야기를 표현한다. 공간 연출을 통해 관람자들은 작품을 다양한 감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작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하여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앞으로의 작업에서 내용, 매체, 형식을 더욱 섬세하고, 자유롭게 시도하여 본인의 작품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롤랑바르트, 『애도일기』, 이순, 2012
- 로잘린드 크리우스,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궁리, 2003
-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서울:미진사, 1999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 사전』, 1999

《참고 논문》

- 오채영, 「가족기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한석현, 「애도와 실재의 윤리: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와 『밝은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구두연, 「설치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석유진, 「퍼포먼스미술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ABSTRACT

A Study on Fear Expression about Family Separation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Yu, Ji Hye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family is the primary social group that human beings have at birth. It is the most basic component of society. In the family fence, through the nurturing process with sacrifice and effort of parents, human being grows. Through it, attachment and bond among family members are formed. Therefore, this formed family relationship has an absolute impact on our lives. And we come to live in dependence on one another. However, family relationship begins to crack due to the death of family members over time. The death of a family formed with attachment and bond brings about helplessness and meaninglessness in life. Family members who might think their relation which one might think lasting eternally noticed there would be separation in near future and they started to feel fear. In addition, being apart from their family members, fear gets grower through similar experience as separation.

I tried to find out why the separation from family members is causing great fear specifically. Based on it, I tried to recover my fear. This paper focuses on the works submitted before 2016 master 's request.

In chapter 1, introduction, the directions and objectives of my works were described.

In chapter 2,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explains how family relation grows into absolute relationship. It also explains why they are afraid of separation which they have not experienced yet. It describes background of the works. Second, the methods of expressing bondage to restore anxiety by the process work and photo montage techniques are described and objects are displaced in space to form single structure of meaning for situational installation. Third, descriptions and production methods for eight of my works are described.

In chapter 3, conclusion, the contents of paper are summarized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described.